

2월의 기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국내외 선교사역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도록 목사님의 영적 안위와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항상 조용기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 2. 2021년 새해에는 더욱 더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 3. 비천한 자를 택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 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 4.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 5.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19로 힘든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과 순종을 주옵소서.
- 6.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예림, 이시은, 이태원, 정경자, 함석숙, Imaobong Odutola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기도로 나아가라

예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순복음교회 성도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이 아닌 독일 사람인데 루게릭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독일 사람이 말도 안 통하는 한인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볼 때마다, 이분이 대답하기를 “통역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이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다.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이 감동스러운 것은 이분이 루게릭병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한 자녀들을 출산하게 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셔서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게 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불신자인 친정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이분의 가정에 새 집까지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신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 중복음과 삼중복음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고 저에게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연약해서 움직이기 힘든 사람도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자기가 건강할 때도 하지 못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은 대개 곧 시련을 당할 때, “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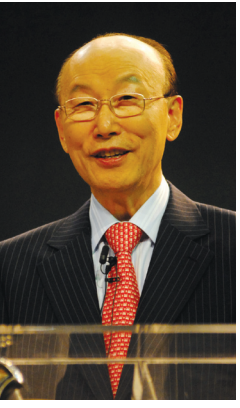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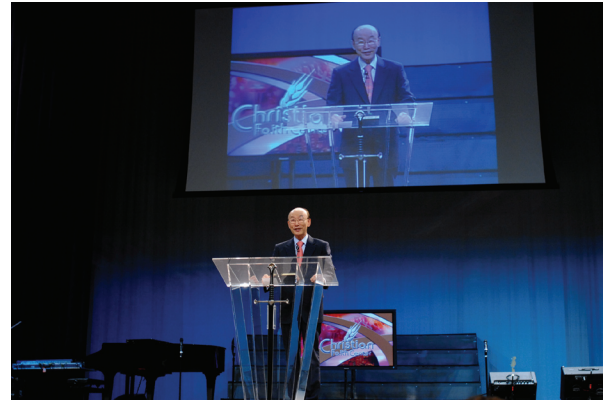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되돌아보는 해외 성회 하이라이트

2008년 4월 미국 시애틀 성회



지난 2008년 4월 미국 시애틀의 크리스천 페이스 센터(Christian Faith Center)가 주최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시애틀 성회가 DCEM의 주관아래 개최되었다.

2008년 시애틀 성회는 2007년 가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 된 CGI대회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방문했던 캐시 트리트 목사가 조용기 목사에게 시애틀에서 성회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루어진 것이다. 캐시 트리트 목사는 시애틀의 성공한 목회자로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전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

성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루며 조용기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조용기 목사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며 “비전과 꿈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라”고 전하며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믿음도 분명하지 못하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매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비전과 꿈을 가져라. 믿음은 비전을 통해 더 견고해 지고 믿음이 풍성해진다”고 설교했다.

성회 후 크리스천 페이스 센터 서점에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저서들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고, 조용기 목사의 저서를 구입하고자 성회 참석자를 비롯한 성도들의 주문이 쇄도했다.

시애틀 성회 후에는 북미지역 한인성도들을 대상으로 한인성회가 열렸다. 진논개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조용기 목사의 말씀을 듣고자 성도들이 대형버스를 대절해 성회에 참석했다. 한인 교민들에게 세계적인 목회자인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북미 지역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2008년 시애틀 성회는 인종과 국경을 넘어 복음을 향한 성도들의 갈급함을 채워준 성회였다.

우리는 전세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되어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기도하면 천국이 보인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장 28-30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 기도하라

둘째로, 문제를 당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 나오고 있으니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올 것을 아시고 바다 속에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피할 길을 예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고 말합니다.

홍해 앞에 서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운데로 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마침 물을 발견했는데 먹어보니 그 물은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당했을 때, 땅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문제를 당했을 때,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당하였을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도 이미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그것을 알려 주시기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을 하는 사람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길을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셋째로, 우리가 기도로서 문제를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된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병의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해결하셨습니다. 저주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살던 것을 회개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쉬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팔을 활짝 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가지고 온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쉼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 하늘을 바라보라

첫째로,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나는 병들었다. 나는 병들었다.” 그러면서 병만 바라보면 병이 한없이 커져요. 병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여덟 식구가 들어갈 배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배를 만들 때 희한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배는 옆에 창문이 없어요. 노아의 배는 오직 천장에 구멍을 뚫어서 위에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을 볼 수 없고 아침, 점심, 저녁 언제나 위의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가 40일 동안 내리니 천하가 다 물에 잠겼는데 일엽편주로 이 노아의 방주만 물에 떠 있었습니다.

만일 배 옆 부분에 창문이 있어서 밖을 내다 보았다면 노아의 가족은 아마 심장마비에 걸려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천하가 다 물에 잠기고 우리만 두둥실 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아주 낙심하고 절망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창문으로 옆에 만들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천장에 문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방주에 탄 사람들이 홍수를 다 지나고 육지에 무사히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당했을 때, 환경을 바라보면 낙담하고 절망하여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특집 : 조용기 목사의 대륙별 해외 성회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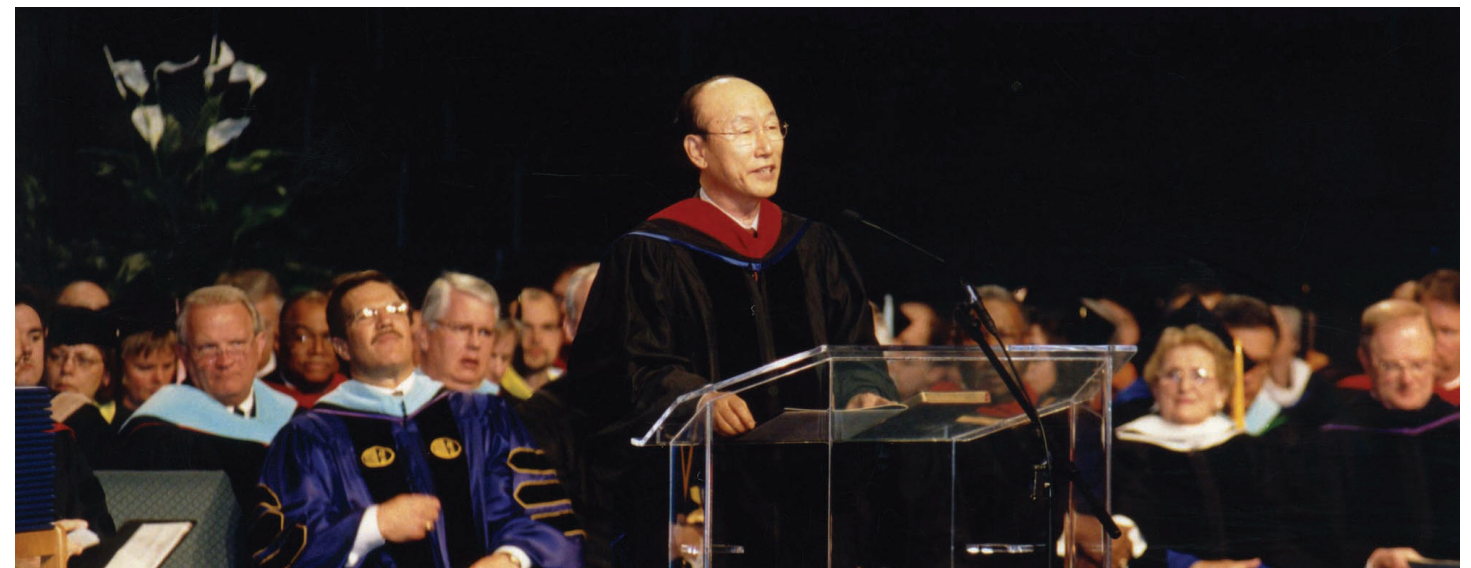
북아메리카 (I)



▲ 2001년 3월 미국 텍사스 달라스 대성회.



▲ 2001년 3월 미국 워싱턴 성회 후 당시 美법무장관(존 에슈크로프트)의 초청으로 장관 집무실 방문.



▲ 2002년 5월 미국 시애틀 대성회

북아메리카 대륙은 지구의 북반구, 서반구에 위치한 대륙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과 캐나다 2개국으로 대표된다. 영국에 뿌리를 둔 공통의 기독교 문화를 가지며, 현대 기독교 문화의 본산지다.

지난 1964년 4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그의 첫 공식 해외 성회이기도한 미국 하나님의 성회 교단 50주년 기념식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며 북미 선교의 첫 발을 내딛었다. 예배 후에는 1개월 동안 미국을 순회하며 부흥 성회를 인도하기도 해 큰 성과를 거둔 시작이었다.

일찍부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던 북아메리카 땅에 아시아의

목사가 선교를 하러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조용기 목사의 북아메리카 선교는 더욱 높게 평가 되고 있다.

지금과 달리 당시 우리나라 국가의 위상은 동양의 작고 가난한 낮은 나라에 불과했고, 국민들의 해외로의 발걸음 또한 자유롭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첫 시작 이후로 이어진 조용기 목사의 북아메리카 선교 여정은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영혼들을 향한 선교 여정을 이어가시는 한편, 미국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초청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특히 1981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취임축하식에서의 예배를 인도하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아메리카와 같은 기독교 복음화가 이미 이루어진 곳이라도 현지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 교민들과 아울러 현지인들에게 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조용기 목사의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시고 동행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964년에 북아메리카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해외 선교 활동은 오늘날 기독교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노력에 일등 공신일 것이다. 앞으로의 선교 여정에도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